40대 이하가 70%… 젊은 도시 '빛가람'

주민 3311명중 42%인 1402명이 타지역 출신

부부 함께 정착…교육시스템 구축, 인구 증가 관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유입인구 가운데 40대 미만이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셈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거주인구가 늘면 늘수록 전남도의 노인 비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1363세대 3311명으로, 이 가운데 42%인 685세대 1402명은 타 지역 출신이었다. 광주·전남과 나주시에서 전입한 인구는 각각 346세대 962명, 332세대 947명 등이었다.

타 지역에서 이사온 인구는 공공기관 직원 또는 관계자이며, 광주·전남이나 나주시에서 전입한 인구는 정주 여건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된 이주 원인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비중은 30～40세 미만이 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 718명, 40～50세 미만 572명, 20～30세 미만 351명, 10～20세 미만 297명, 50～60세 미만 262명, 60세 이상 142명 순이었다.

또 전체 세대당 평균 인구는 2.45명이었고 타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는 2.04명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직원 또는 관계자는 주로 부부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에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질 높은 초·중·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인구 증가의 핵심 전제가 될 전망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는 모두 1만795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현재 건립중인 1만5697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15년 2871세대, 2016년 5706세대, 2017년에는 7120세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주여건 조성과 이전 지원 과제 76건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21개 입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빛가람 혁신도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를 갖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공동주택 공급시기가 엇갈리면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완공시점에는 대폭적인 전입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2017년에는 인구 5만의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돼지고기 이력제' 28일부터

사육·도축정보 관리…유통안전성 확보

소고기처럼 돼지고기도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6자리)를 문신해야 한다.

농장 고유 번호만을 보고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줄 알 수 있게 됐다. 또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12자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력번호만을 보고 국산 여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66곳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처리 현장조사 이달 중 착수

해수부 TF회의…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진도서 추모문화제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 등 선체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 중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기술검토를 위해 필요한 세월호 선박의 내외부 상태 조사, 조류 속도 및 밀물·썰물의 변화 측정, 해저면의 토질조건 조사 등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그 결과 이달 중 선박 및 장비 등을 투입할 수 있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천안함과 서해훼리호의 인양 사례, 세월호의 상태 및 선박 구조, 수색구조 과정에서 조사된 해역의 물리적 특성, 세월호 사고 지점의 잠수 여건과 잠수 기술, 잔존유 오염 방제 사례 및 최신 방제기술, 외국의 선체 인양 사례 등이 발표되고 논의됐다.

해수부는 최근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협의회를 열고 실종자 가족들이 기술검토 TF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전문가를 추천해 기술검토 TF에 의견을 내거나 기술검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6일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이날 팽목항 등대길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여명이 비와 눈이 섞여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며 "정부가 구조를 포기한 데에 이어 인양까지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화제는 팽목항에 남아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발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의 결의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 중간에는 광주 간디학교, 지혜학교 학생 등 참석자들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팽목항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대표로 발언한 권오복씨는 "더는 할 말도 없다"며 "시련 속에서 단련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 훼손 없는 인양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체 조속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 선체 훼손 없는 인양, 인양된 선체 보존 등을 요구했다. 문화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사고해역 쪽으로 풍등 100여개를 날리며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6일 오후 진도군 팽목항 등대길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평서 남부 최대 '즙석분' 발견

5～6세기 만들어져…마한-일-중 교류 파악 도움

함평에서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즙석분(葺石墳)'이 발견됐다. 즙석분은 봉분 표면을 돌로 덮은 무덤이다.

전남문화예술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최근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전남기념물 제151호 금산리 방대형고분이 삼국시대 만들어진 남부지역 최대 즙석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고분은 분구의 한 변 길이가 50～55m, 높이는 9m에 달한다"며 "5～6세기 마한과 일본·중국 등의 국제교류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산리 방대형고분은 구릉의 정상부를 다듬은 후 다시 흙을 쌓아 올린 뒤에 봉분 표면을 돌로 덮어 축조한 것을 조사됐다.

그동안 발견된 즙석분은 서울 석촌동 3호분과 가락동 1호분 등이 있으며 전남지역에서 조사된 사례가 드물다. 특히 금산리고분과 같이 봉분 전체를 돌로 덮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통형토기(분주토기), 원통식륜(圓筒埴輪), 형상식륜(形象埴輪),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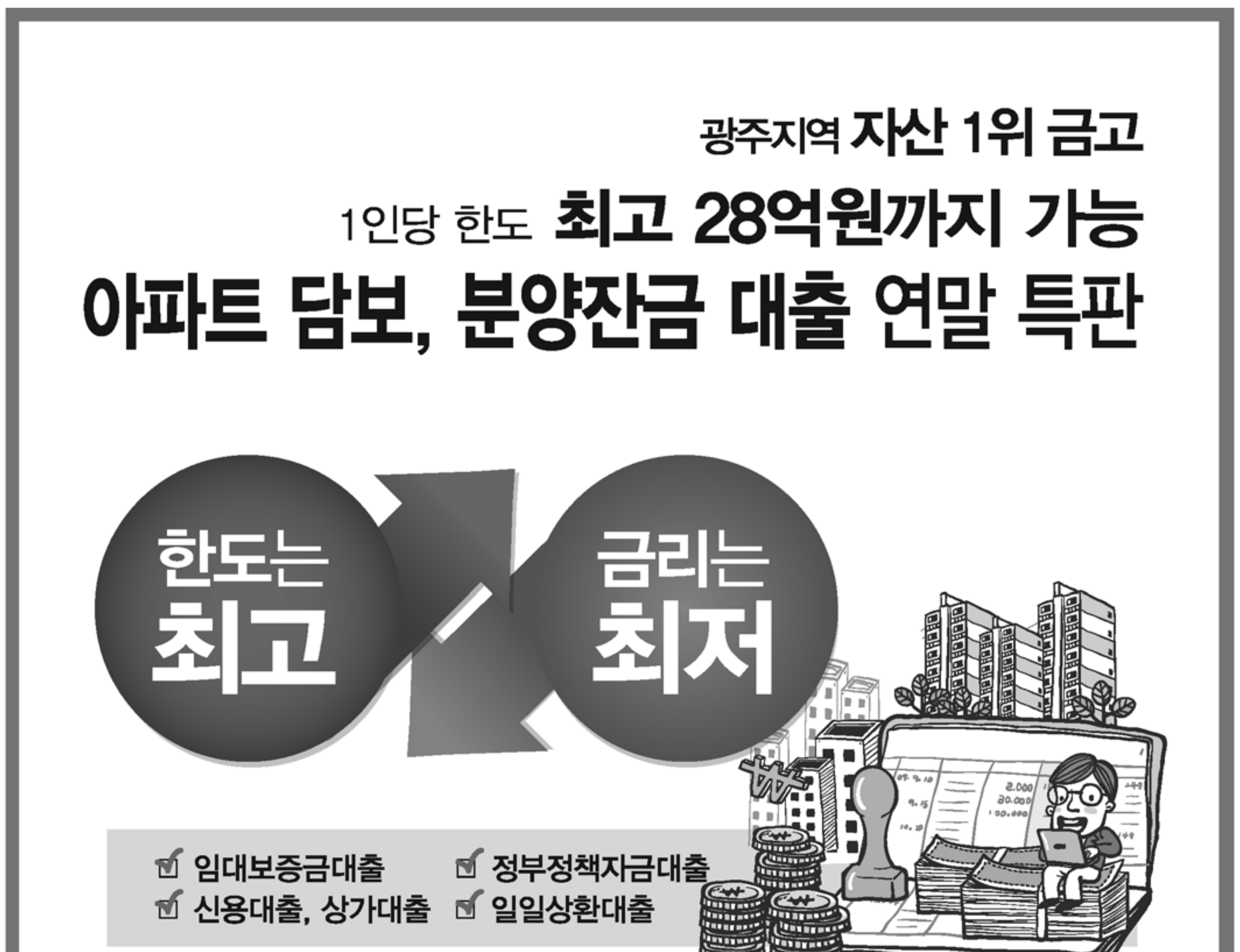
특히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제사와 의례에 사용했던 용품인 형상식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다.

/김경인기자kki@

내과 전공의 사상 첫 미달…지원 92% 그쳐

전공의 모집 사상 처음으로 내과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전공의 모집현황 자료'를 보면 내과는 588명 정원에 542명이 지원해 92.2%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4년 150%에 달했지만 2010년 139%, 2014년 109%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다.

내과 이외에도 전통적인 비인기 과목으로 분류되는 외과, 흉부외과의 지원율도 올해 각각 58.9%, 39.6%에 그쳐 여전히 미달됐다. 외과, 흉부외과와 함께 비인기 과목으로 분류되던 산부인과는 올해 150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정원을 채웠다.

/연합뉴스